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주거문화에 관한 연구 경향 분석

- 선행연구의 주제어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Trends in Housing Culture Until the Recent Year Since 1980s

- Focused on the keywords of previous researches -

Author 김영주 Kim, Young-Joo / 정회원, 중앙대학교 주거환경학과 부교수, 이학박사
이수민 Lee, Soo-Min / 정회원, 중앙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석사과정
김은빈 Kim, Eun-Bin / 정회원, 중앙대학교 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석사과정
박수연 Park, Soo-Yeon / 정회원, 중앙대학교 디자인학과 공간디자인전공 석사과정

Abstract Housing culture can be defined as a subculture that characterizes a society, a region, and a time period. Therefore, identifying the housing needs of people is an effective way of understanding the housing cultu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search trend of housing culture since 1980s until the recent year based on the keywords of previous literature. Seventy-one research articles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and analysis framework which was composed of 4 aspects -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and living/welfare - was drawn for further analysis. As a main result, housing needs in social and living/welfare aspect were increasing as time passes. In general, researches related to physical aspect showed the highest ratio among 4 aspects. Specifically, research interests in community and social relationship among neighbors, natural environment, and housing welfare has remarkably increased since 2000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housing culture is the comprehensive result or the process reflecting the needs and context i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al background of those days.

Keywords 주거문화, 내용분석,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생활·복지
Housing Culture, Content Analysis, Physical, Social, Psychological, Life·Welfa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 중 하나로, 물리적 거주공간인 주택을 만들고 기거하는 방식은 각 문화권과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되어왔다. 주거는 그 지역의 자연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심리적 요인, 생활방식 등에 의해 다각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갖게 된다.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의 주거문화 역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오늘날의 주거문화를 한마디로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과거와 달리 현대사회는 그 변화와 발전의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의 주거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지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수많은 학자들이 미래사회에 대해 다양한 예측을

했으며 이중 상당부분은 오늘날 현실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내용으로 우선 가치관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화 양상을 보이는 한편 사고체계와 생활방식 등에서 다양화된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는 정보화, 고기능 첨단화, 제품 및 환경의 사용 편리성을 강조한 간편화, 친환경화, 고층고밀개발 가속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 그밖에 사회적 측면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인구증가율 감소, 자녀수 감소, 맞벌이부부 증가, 직업의 다변화, 주5일제 근무 실시 등에 따른 여가 문화 확산, 1-2인 가구 증가, 다문화 가구를 비롯한 가구유형의 다양화, 마을 만들기 등 새로운 공동체 문화의 출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토대로 미래의 주거문화가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선 그간 주거문화의 변화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시대 흐름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 주거문화의 방향을 정리하고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8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수행된 선행 연구문헌의 주제어에 대한 내용 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거문화의 변화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주거문화의 정의

주거문화는 지금까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개념으로 정의되어 왔다. 광의적 차원에서 주거문화란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수에 의한 전형적인 삶의 방식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한 사회를 특징짓는 하나의 하위문화로 설명되기도 한다.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요소로 주택을 비롯한 물리적 공간이나 장소 및 그와 연관되어 나타나는 생활양식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¹⁾ 유태용(1999)은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차원으로 물리적 주거환경과 행동 그리고 주거가치라는 세 가지 측면을 언급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면서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맥락에 근거하여 일반적으로 주택은 주거문화를 반영하는 물리적 표현으로 이해된다.²⁾ 흔히 주거문화를 정의할 때 '주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삶의 방식 또는 생활양식'³⁾ 등으로 설명한다. 결국 주거문화란 어떤 지역과 사회, 한 시대를 특징짓는 하위문화의 하나로써 주택을 매개로 형성되는 주거의 방식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주거문화란 그 시대와 지역 및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의식과 요구, 형태와 생활방식을 통해 드러나는 다각적인 문화적 양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2. 주거요구

주거문화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거문화를 설명하는 관련 개념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언급되는 개념으로 주거요구를 들 수 있다. 연구자별로 주거요구를 정의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강지혜(2008)는 주거의 물리적 측면에 국한하여 주택의 능동적인 개선 의지와 필요의 개념으로 주거요구를 정의⁵⁾한 반

면, 강순주와 김상희(2006)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주거요구란 현실의 주거 및 주생활에 모순을 느끼고 불만 해소를 위해 행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뜻한다고 하였다.⁶⁾ 한지희와 윤정숙(2011)은 주거요구란 주택에 대하여 변화하길 희망하고 바라는 것으로, 이는 주변 환경과 거주경험, 가족구성의 특성에 따라 발생한다고 함으로써 사람마다 주거요구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⁷⁾ 결국 주거요구란 현재 주거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희망하는 의지로, 이는 개별적인 거주환경과 거주경험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3. 주거선호와 주거기대

주거선호란 주거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 과정에서 개인의 주거가치에 따라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을 말한다.⁸⁾ Morris와 Winter(1978)의 주거조절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유형이나 규모는 사회적 또는 가족규범에 의하여 규정되는데, 주거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는 다양한 여건에 따라 변화한다. 한편 주거기대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구체적인 대상이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라는 사고주체의 생각을 의미한다.⁹⁾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문헌자료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대별 흐름에 따른 주거문화의 변화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누리미디어(DBPLA)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서 1980년 이후 2012년까지 수행된 연구문헌들 중 주거문화, 주거선호, 주거기대, 주거요구, 주거의식을 키워드로 한 자료를 검색하였다. 이렇게 검색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학술지 게재 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논문, 학위논문 등 총 70편을 최종 분석에 이용하였다.

3.2. 분석틀 구성

수집된 자료의 내용분석을 위한 객관적 분석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문헌의 주제어(키워드)와 주요변인들을 중심으로 공통된 특성을 가진 주제어들을 묶어내는 과정을 여러 단계 거친 후, 최종적으로 크게 4개의 주제영역(물리적, 심리적, 사회적, 생활·복지)을 도출하였다. <표 1> 이러한 분석틀에 준하여 1980년대 이후 최근까

1) 신창현, 인쇄매체 광고를 통해 본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경향에 대한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2003, p.1
2) 이성미·이연숙, 주요 신문매체를 통해 본 아파트 주거문화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2005.6, pp.9-10
3) 이경희,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1996, p.194
4) 강인호·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세진사, 서울, 2000, p.37
5) 강지혜,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의식의 유형화와 주거요구에 관한 논문, 연세대 석사논문, 2008, p.6

6) 강순주·김상희, 현대주거학, 교문사, 서울, 2006, p.70
7) 한지희·윤정숙, 대학생 1인 가구의 생활패턴 및 주거요구에 따른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평면계획방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4호, 2011, pp.93-102
8) 주거학연구회, 넓게보는 주거학, 초판, 교문사, 서울, 2005, p.13
9) 주거학연구회, 전개서, p.15

지 수행된 시대별 선행 연구문헌의 내용을 정리하였다.

4. 시기별 주거문화의 변화경향

198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수행된 주거문화 관련 선행 연구문헌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1980년대

1980년대는 경제성장에 따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공간 확보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었고 여가, 문화생활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던 시기이다. 특히 아파트 보급의 확산과 더불어 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독립된 주거공간 확보와 난방방식의 개선,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 부엌 공급 등을 통한 주거생활의 서구화가 시작되었다. 1980년대의 평균적인 가구 구성은 자녀를 두 명 둔 핵가족으로 1980년대 중반의 전형적인 아파트에서 안방 겸 부부침실에서는 부모가, 다른 두 방에서는 자녀가 한 명씩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처럼 편의성, 효율성, 경제성 위주의 아파트 주거형태는 그 속에서 생활하는 일반 거주자들의 주의식 변화를 가속화하였다.

1980년대의 선행연구문헌¹⁰⁾을 분석한 결과 이 시기에는 주로 주거의 실용성과 편리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주택유형에서는 아파트보다 단독주택에 대한 선호와 관심이 더욱 높았으며,¹¹⁾ 개인과 가족 중심적인 공간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당시의 공유공간은 개별 주택의 거실과 부엌 등 가족중심적인 공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이웃과의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공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이후는 고도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로 물리적으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분당 일산 신도시가 계획되었다. 이와 더불어 사회문화적으로는 88 서울올림픽과 86 서울아시안 게임의 한국 개최를 계기로 급속히 빨라진 국제화 경향과 맞물려 사람들의 의식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거문화와 디자인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던 시기였다.

4.2. 1990년대

1990년대는 주택에 대한 과도한 수요 발생과 기존 주택의 질적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좁은 땅에 많은 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이 지속되었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보급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 되었다. 그러나 주택문제에 대한 해결

책이 공급 위주로 치우치면서, 소비자의 주거 가치와 선호에 근거한 다양한 주거요구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더불어 확실적인 주택 공급이 아닌, 거주자구의 특성과 요구, 선호 등을 고려한 주택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같은 소비자 수요의 다변화에 대응하여 주택건설업체별로 주택 마감재의 고급화, 주택 평면의 다양화, 외부공간 확대를 통한 단지 내 녹지공간의 다양화 유도, 공용공간의 설치 등 차별화 전략을 통해 주거문화의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¹²⁾¹³⁾ 1990년대는 또한 세계화, 정보화를 표방하던 시기로, 개인용 컴퓨터의 보급과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온라인상의 사이버 공동체가 탄생하면서 하루 종일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코쿰 족이 나타나기도 하는 등 새로운 생활양식이 등장하게 된다.¹⁴⁾¹⁵⁾ 가족구성 측면에서는 핵가 족화와 더불어 소규모 가족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평면에서는 침실 수가 감소되거나 주택규모에 따라 침실 수가 고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학문적으로는 소비자들의 주거선호 및 가치 등 주거의식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¹⁶⁾¹⁷⁾ 특히 고령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노인주거 개발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노인 주거의 대안으로 삼대 가족 주택에 대한 연구와 중년층(예비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주거유형 및 주거환경 선호에 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¹⁸⁾¹⁹⁾ 이처럼 1990년대는 21세기 새로운 주거문화를 화두로 내걸면서 밀레니엄시대의 새로운 주거문화와 하이테크시대의 주택정보를 총망라하고 기술개발에 따른 다양한 생활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간편하면서도 활기찬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주거문화를 발전시키며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시기는 또한 ‘퓨전문화’와 ‘퓨전디자인’이 확산되던 때로 1990년대 말 이후 신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전 세계 문화를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의 확산 및 네트워크 중심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타 문화를 포용하는 가치관의 변화가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⁰⁾

12) 서정렬, 주거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른 향후 주택개발의 방향, 주택포럼 제3권 8호, 1997.9, pp.73-83
13) 이선미·이연숙, 주부들이 원하는 아파트 실내공간의 평면구성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호, 1998.12, pp.173-180
14) 박영순·신인호·한정원·황유진, 도시 아파트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5권 1호, 1994.6, pp.17-27
15) 김미희·이유미,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9권 2호, 1998.6, pp.89-96
16) 이연숙·이정연, 집합주택의 실내환경속성에 대한 거주자 선호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권 2호, 1990.12, pp.49-66
17) 김미희·문희정,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8권 3호, 1997.10, pp.91-98
18) 오찬욱·이연숙, 중년층의 배경변인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4권 1호, 1993.6, pp.29-38
19) 이연숙·신화경, 노인동거가족의 공간적 환경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6권 2호, 1995.6, pp.91-99
20) 유수연, 디지털시대의 퓨전문화와 퓨전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

10) 이 중 1편(은난순, 2004)은 2000년대 이후에 수행된 연구자료이나 연구내용의 시간적 범위상 1980년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시기 구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하였음.
11) 송장복·전경배, 單獨住宅住民의 住居意識 및 行態에 관한 調査研究 -서울경우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권 4호, 1987.8, pp.55-64

<표 1> 시기별 주거문화 관련 선행연구문헌 주제어 및 주요변인 분석

시기	연구자(연구년도)	주제어(변인) 1	주제어(변인) 2	주제어(변인) 3	주제어(변인) 4	주제어(변인) 5
80년대	송장복 외 1인(1987)	주거적합성	편익성	주택유형	프라이버시	
	정은옥 외 1인(1987)	물리적 요인	생리적 요인	안전	프라이버시	생활유형
	백혜선(1989)	질적 주거수준	주택형태	공유공간	정부/경제적지원	
	은난순(2004)	아파트 대량공급	현대적 설비	실내공간디자인	공동생활	소음
	김중희 외 1인(2008)	주거공간	공유공간(거실)	아파트	서구식	
90년대	이연숙 외 1인(1990)	주거공간 크기	공간간의 연결정도	내부시설		
	이연숙 외 3인(1991)	경제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생활행위적
	정옥연 외 2인(1992)	주거실태	주거욕구	주거의식		
	윤복자 외 2인(1993)	주거특성	입지특성	가구특성		
	오찬옥 외 1인(1993)	지리적위치	주거유형	동거자	임대주택 거주 의사	노인계획주거 선호
	박영순 외 3인(1994)	주생활양식	실내선호분위기			
	정무용 외 1인(1994)	변화형식	외부공간, 내부구조	평균깊이	집중치	실의 특성변화
	윤복자 외 1인(1994)	물리적측면의 전통성	사상적측면의 전통성	거주자특성		
	이연숙 외 1인(1995)	거주거리	거주공간환경	계획주거유형		
	전명숙 외 1인(1995)	노인주거유형	노후주거환경 요구	사회경제특성	사회활동 유형	노후인식
	은난순 외 1인(1996)	생활편익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활동지원/업무홍보	안전과 질서유지	사고예방
	손세관(1996)	인공환경/자연환경	가족해체/중시	개인주의/공동체	디지털/아날로그	개성
	오찬옥(1997)	여가시설이용률	가구특성	여가시설 만족정도	여가시설 요구도	
	이연숙 외 2인(1997)	이용실태	공간에 대한 요구	거주자특성	가족생활주기	
	윤현기(1997)	주거사적 고찰	사회문화적 요인	주거통합	주거패러다임	주거정책
	김미희 외 1인(1997)	주민전용공동공간	거주자특성	주의식		
	윤복자 외 2인(1998)	주택관련변인	개인적변인	주거기대/주거선호		
	이선미 외 1인(1998)	주거특성	지역특성	각실의 배치특성	가족특성	
	이영심 외 1인(1998)	욕실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최영순 외 1인(1998)	주택내부	단지구성 및 외부공간	근린시설	관리업무	거주자 특성
	김미희 외 1인(1998)	주거내부·외부공간	가구특성	주생활양식		
	김행신(1998)	안전설비	활동지지	공간구성	사회심리	
	김한수 외 1인(1999)	공동주택 실 구성	평면형태/내부공간			
	권오정 외 1인(1999)	바닥재	사회인구학적 특성			
	현택수 외 2인(1999)	건물 구성요소	단지환경	단지시설 및 설비		
이기정(1999)	주택특성	내부공간 특성	외부공간 특성	가구특성		
김은영(1999)	주거특성	희망주거유형				
00년대	하성규(2000)	주택형태	주택점유방식	주택재고	주거권	
	조정희(2000)	인테리어	목적			
	민찬홍(2000)	실내이미지	아파트평형	모델하우스	트렌드변화	라이프스타일
	김정환(2001)	공간계획	재료/재질	색채	가구	
	김용성 외 2인(2001)	규모/형식	디자인	주제		
	김정아(2001)	자연환경	생산방식	사회구조 이웃관계	관념체계	생활형태
	장종림(2002)	사회현상				
	신창현 외 1인(2002)	물리적	실용성	경제적	문화적	
	박선희(2003)	단지와 근린환경	경제적 측면	프로그램 측면		
	윤기병(2003)	주거모델제시	시장경제	사회적변화		
	이경희(2003)	주거유형	주거위치	개인실규모		
	은난순(2004)	경제적 측면	사회적환경의변화			
	김국선(2004)	공간배치특성	공간구성특성	실내장식특성	주거공간개념	조형특성
	조용준(2004)	도시	건축물	생활		
	김재호 외 1인(2004)	사회문화적요인	소비자감성요인	디자인흐름	실내디자인흐름	
	이성미 외 1인(2005)	물리적측면	행태적 측면	가치적 측면		
	천현숙(2005)	프라이버시성, 과시성	기능성과 독점성	동질성과 차별성	협조성과 경쟁성	
	최경란(2005)	기술적	디자인동향	사회적	문화적	
	김경숙(2006)	사회인구학적특성	디자인요소특성	실내디자인특성		
	윤준선 외 1인(2007)	양적문제(공급)	질적문제(수준)			
	류혜지(2007)	환경인지	사회인구학적특성	현재거주특성	시설요구	
	배은경(2008)	건축적측면	사회적측면	의식적 측면		
	서민경(2009)	건설사별	이미지/주제 별			
	이현수 외 1인(2009)	평면계획요소	인테리어 계획요소	커뮤니티공간계획		
	김동진 외 2인(2009)	풍토성	규범성	진승성		
류현주 외 1인(2010)	공간이용특성	공간계획	운영 및 관리	제도 및 정책	주거의식	
이지연 외 2인(2010)	계획개념	시대별				
류혜지(2010)	편리성	쾌적성	정보성			
류혜지(2010)	신체적상황	경제적상황	사회적상황			
조성희 외 1인(2011)	신체적차원	관리적차원	사회적차원	심리적차원		
신수영 외 1인(2011)	주택소유계기	사회적차원	전략과 수단	주택구입결정	주택소유이유	
박지민 외 2인(2011)	실내마감재료	사회인구학적특성	감성평가	실내공간이미지		
정성호 외 1인(2011)	입지성	경제성	공공안전			

	한문종 외 1인(2012)	편리한 서비스	건강한 서비스	안전한 서비스	행복한 서비스	
00년대	김순호 외 2인(2012)	교통환경	경제안정	가족안전	주거문화	보건복지
	김영미 외 1인(2012)	물리적 특성	시설환경적 특성	접근성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해경(2012)	규모	쾌적성	경제적 측면	환경적 측면	
	강순주 외 2인(2012)	물리적 요소	사회적 요소	심리적 요소		
	박정아 외 1인(2012)	안정성	보건성	성능	쾌적성	

□ 물리적차원 ▨ 사회적차원 ▩ 심리적차원 ■ 생활·복지차원

4.3. 2000년대

2000년대 이후에는 노인을 비롯하여, 대학생, 1-2인 가구, 비수도권 지역, 다문화 거주자 등 다양한 수요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요구와 의식을 다루는 연구들이 폭넓게 수행되는 경향을 보였다.²¹⁾²²⁾ 또한 이 시기에는 건축기술의 발달과 분양가 자율화제도에 따라 건설사별로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와 차별화 전략들이 나타나면서 이를 다룬 연구가 나타났으며,²³⁾ 사이버공간 속에 나타난 주거환경의 문화적 정체성²⁴⁾이나 유비쿼터스 홈, 스마트 홈 등 과학기술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연구²⁵⁾도 수행되었다. 200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주상복합, 지속가능성, 주거문화와 지역성, 뉴타운, 커뮤니티와 같은 키워드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거유형과 커뮤니티 개념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²⁶⁾²⁷⁾²⁸⁾ 특히 2000년대에는 주거문화의 세부주제(요소)별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경향 분석을 통해 미래 주거의 방향을 유추하는 내용의 연구가 증가하고 있었다.²⁹⁾³⁰⁾ 이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였다. 향후의 주거문화는 양적인 발전이 아닌 질적 측면에서의 발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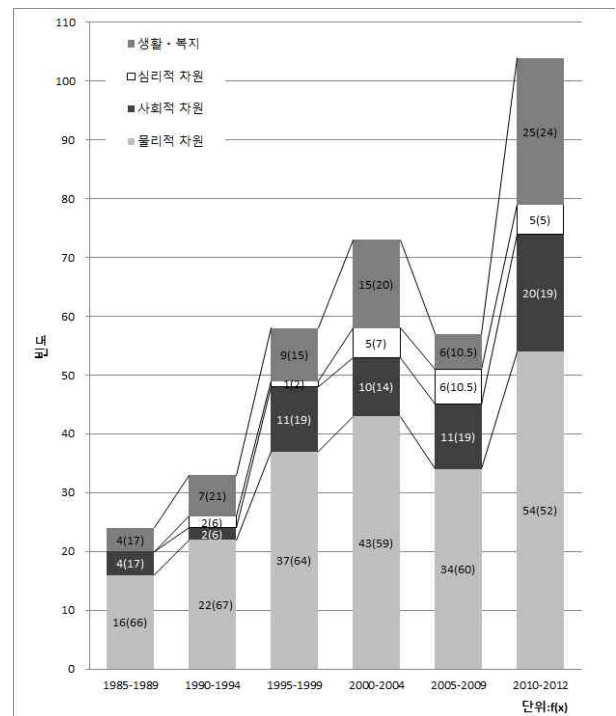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특히 2004년에 고령화 사회로 본격 진입하면서 웰빙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친환경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더불어

- 21) 박지민·윤정숙·박은선, 대학생의 감성과 선호하는 주거 실내공간이 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6호, 2011.12, pp.97-106
- 22) 김영미·장희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0권 1호, 2012.6, pp.17-29
- 23) 김용성·이공희·박수정, 공동주택 건축디자인에 있어 차별화전략 구성요소에 관한 기초적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2권 2호, 2001.4, pp.153-164
- 24) 김정아, 산업화가 전통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매개변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2권 4호, 2001.11, pp.141-152
- 25) 배은경, 주거환경 변화에 의한 스마트 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3권 2호, 2008.8, pp.49-59
- 26) 장립중, 우리주변의 거주 문화를 통해 본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대한건축학회지) 제46권 12호, 2002.12, pp.34-37
- 27) 류혜지, 길을 뉴타운 주거환경디자인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3권 4호, 2007.12, pp.148-156
- 28) 강순주·김진영·함선익, 공동주택 커뮤니티 관련 연구들의 시대적 경향분석과 사회적 배경 요인들과의 관계,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3권 4호, 2012.8, pp.19-31
- 29) 윤준선·이창석, 새주거문화 변천의 이론적 접근과 미래주거의 전망, 부동산학보 제31집, 2007.12, pp.255-264
- 30) 이현수·박소윤, 미래 주거 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마이크로 트렌드 분석, 인포디자인이슈 제16호, 2009.3, pp.45-58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에 대한 관심 역시 함께 높아지던 시기였다.

4.4. 시기별 주거문화 관련 연구주제의 변화 동향

이상에서 언급된 선행연구문헌의 분석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시기별 분석단위를 1985년부터 최근까지 5년 단위로 임의 구분하여 총 6개 시기로 나눈 후, 각 시기별로 관련 연구문헌의 주제별 내용을 분석하였다. 앞서 도출된 주거문화 내용분석틀을 구성하는 4가지 하위차원(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생활·복지)별로 연구주제의 변화 동향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1980년대의 경우 전반적인 주거문화 관련 연구의 수량 자체가 이후 시기에 비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당시는 무엇보다도 주거의 양적인 부족문제 해결에 집중하던 시기였던 만큼 선행연구문헌의 주제어 역시 물리적 차원에 집중되는 특성을 보였다. 한편 1995년 이후부터 주거문화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급증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주제 면에서 주거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높은 관심은 시기에 상관없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지만 2006년 이후로 다소 줄어드는 반면, 주거의 사회적 차원과 생활·복지 차원의 연구들이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림 1> 주거문화 관련 연구주제 차원의 변화 경향

2011년 이후부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 대한 사회적, 정책적 관심 증가와 더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복지 차원의 주거문화 연구 역시 크게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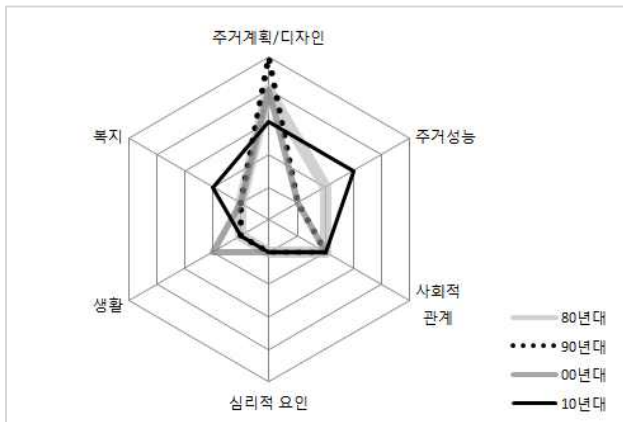
4.5. 시기별 주거문화 변화경향 분석결과 종합

(1) 주거문화의 구성 차원에 대한 시기별 변화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시기별로 나타나는 주거문화의 변화 경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의 분석틀에 근거하여 물리적(주거계획 및 디자인, 주거성능의 2개 요소로 세분), 사회적, 심리적, 생활, 복지 등 6개 영역별로 관련 주제들의 분포(백분율)를 <표 2>와 같이 정리하고 이를 도식화하였다.<그림 2>

<표 2> 주거문화 변화 경향: 1980-2012 n(%)

	주거계획 / 디자인	주거 성능	사회적 관계	심리적 측면	생활	복지
1980년대	11(45.8)	5(20.8)	4(16.7)	0(0.0)	3(12.5)	1(4.2)
1990년대	47(51.6)	12(13.2)	13(14.3)	3(3.3)	8(8.8)	8(8.8)
2000년대	60(46.2)	17(13.1)	21(16.2)	11(8.5)	12(9.2)	9(6.9)
2010년이후	29(27.9)	25(24.0)	20(19.2)	5(4.8)	9(8.7)	16(15.4)



<그림 2> 주거문화 변화 경향

1980년대는 수도권 5개 신도시에 대한 주택 200만호 공급 정책을 중심으로 아파트 중심의 양적인 주택공급에 치중하던 시기이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주거문화와 관련된 연구주제와 주요변인에 대한 분석결과에서도 주로 주거계획과 디자인 및 주거성능 등 주거의 물리적 차원을 다룬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아파트라는 주거유형에 대응하는 서구식 생활방식의 정착에 대한 관심이 연구로 이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도 상당부분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1990년대는 아파트 건설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별로 차별화된 계획 전략을 내세우던 시기였던 만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주거계획 및 디자인과 관련한 물리적 차원의 연구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에도 지속되기는 하나 이전 시기에 비해 주거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감소되는 반면 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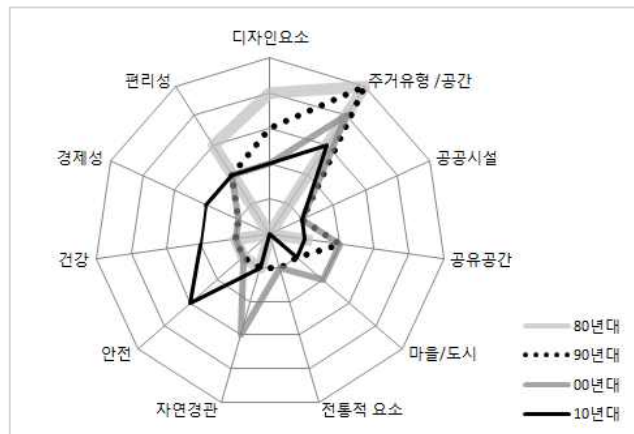
심리 및 생활과 복지 차원에 대한 관심이 고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주거문화의 물리적 차원에 대한 시기별 변화

앞서 나타난 것처럼 시기별로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각 영역에 대한 관심 동향이 변화하는 현상을 세부 주제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이를 다시 물리적 차원과 사회적, 심리적, 생활·복지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중 물리적 차원의 세부요소별 관심 동향을 정리한 결과는 <표 3>과 <그림 3>에 제시된 것과 같다.

<표 3> 물리적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n(%)

	디자인 요소	주거유형 / 공간	공공 시설	공유 공간	마을/도시	전통적 요소
1980년대	3(15.8)	6(31.6)	0(0.0)	1(5.3)	0(0.0)	0(0.0)
1990년대	10(16.9)	19(32.2)	3(5.1)	8(13.6)	2(1.7)	5(5.1)
2000년대	11(14.3)	20(26.0)	2(2.6)	6(7.8)	5(6.5)	5(6.5)
2010년이후	5(9.3)	11(20.4)	4(7.4)	2(3.7)	4(7.4)	0(0.0)
	자연경관	안전	건강	경제성	편리성	
1980년대	1(5.3)	1(5.3)	2(10.5)	0(0.0)	2(10.5)	
1990년대	3(5.1)	3(5.1)	1(1.7)	3(5.1)	5(8.5)	
2000년대	11(14.3)	2(2.6)	2(2.6)	4(5.2)	9(11.7)	
2010년이후	3(5.6)	9(16.7)	5(9.3)	5(9.3)	6(11.1)	



<그림 3> 물리적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물리적 차원의 세부요소로서 디자인요소, 주거유형 및 공간, 공유공간, 공공시설, 마을/도시, 전통요소, 자연경관, 안전, 경제성, 건강 및 편의성으로 구분하고 선행연구문헌에서 다루어진 각 세부 요소별 시기별 분포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1980년대에는 주거문화의 물리적 차원과 관련하여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거유형 및 공간계획에 관한 주제가 가장 많이 다루어졌으며, 그 다음은 디자인 요소, 건강성과 편의성의 순이었다. 그러나 분석대상 연구문헌 중에서는 공공시설, 전통성, 마을 및 도시환경을 다룬 내용은 없었다.

이는 관련문헌의 수가 적은 데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주거에 대한 연구자 및 소비자의 주요 관심사가 단위주택 내부의 계획 및 주거성능으로 국한되어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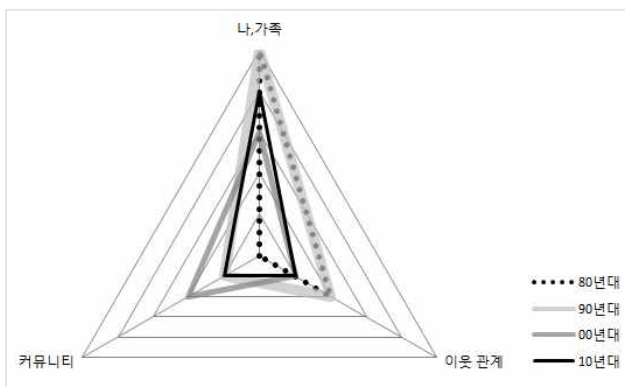
1990년대에도 여전히 아파트 위주의 주거유형 및 공간 계획에 관한 주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비해 공유공간을 주제로 다룬 연구가 2배 이상 늘어남으로써 개별 단위주택을 중심으로 수행되던 연구의 관심이 점차 사회적 공간으로 확대되어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00년대에는 주거유형 및 공간을 주제로 한 연구의 비중이 이전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는 대신 마을/도시주거환경, 자연환경, 안전성과 생활편의성 등을 다룬 연구들이 증가하였다.

(3) 주거문화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시기별 변화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사회적 차원의 세부요소별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가족, 커뮤니티, 이웃관계로 세부요소의 내용을 구분하였다. 시기별로 각 세부요소를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표 4>, <그림 4>와 같이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n(%)

	개인, 가족	이웃관계	커뮤니티
1980년대	3(75.0)	1(25.0)	0(0.0)
1990년대	9(69.2)	3(23.1)	1(7.7)
2000년대	11(52.4)	3(14.3)	7(33.3)
2010년 이후	12(60.0)	5(25.0)	3(15.0)



<그림 4> 사회적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분석 결과 1980년대에는 주거문화의 사회적 차원과 관련한 연구가 상당히 적은 편으로 주로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거공간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이웃과 커뮤니티 등 사회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화하여 1990년대 이후부터 이웃관계와 커뮤니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토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여러 정부 부처에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규모와 명칭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공적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웃과 더불어 살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한 것도 한 몫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맞물려 나타난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현상 역시 이웃과의 새로운 사회적 관계 형성을 통한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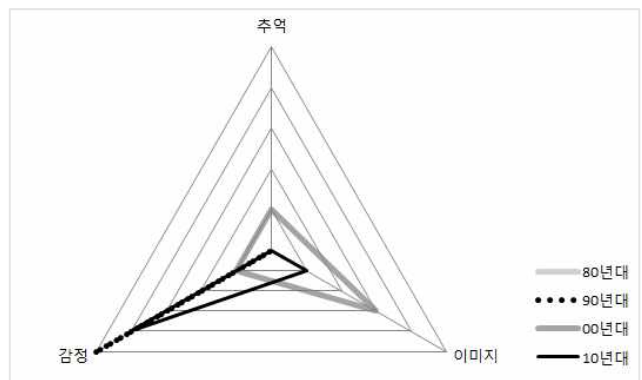
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주거문화의 심리적 차원에 대한 시기별 변화

주거문화를 구성하는 심리적 차원의 세부요소별 변화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억, 이미지, 감정으로 세부요소의 내용을 구분하였다. 시기별로 각 세부요소를 다룬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표 5>, <그림 5>와 같이 나타났다.

<표 5> 심리적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n(%)

	추억	이미지	감정
1980년대	0(0.0)	0(0.0)	0(0.0)
1990년대	0(0.0)	0(0.0)	3(100.0)
2000년대	2(18.2)	7(63.6)	2(18.2)
2010년 이후	0(0.0)	1(20.0)	4(80.0)



<그림 5> 심리적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심리적 차원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로 과거에 대한 추억이나 전통, 선호하는 이미지, 감정 등에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시켜 선행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1980년대-1990년대에는 이를 다룬 연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후반 이후 최근까지는 흔히 융합(convergence)의 시대로 불리는 시기로서, 소셜 네트워크(service)의 활성화로 인터랙션 디자인(interaction design) 분야가 발달하는 동시에 감성과 전통이 강조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주거문화에 있어서도 한편에서는 과학기술의 융합과 더불어 한옥 등 전통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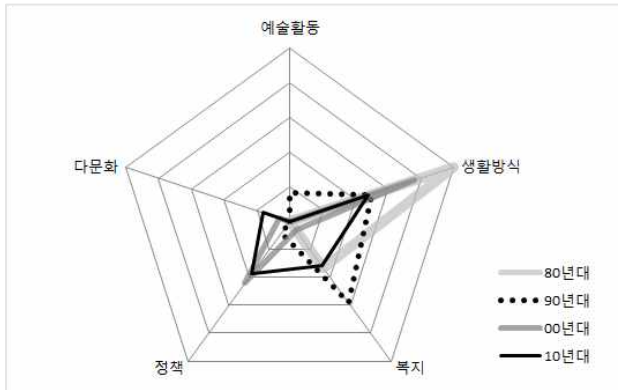
(5) 주거문화의 생활·복지 차원에 대한 시기별 변화

주거문화의 생활·복지적 차원에 해당하는 하위요소로 생활(생활방식 및 여가문화활동)과 복지(복지, 정책, 다문화 등)와 관련된 주제어를 포함한 선행연구문헌을 분석한 결과 <표 6>, <그림 6>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보면 1980년대에는 서구식 생활방식의 도입을 다룬 일부 연구가 다루어졌을 뿐 복지에 관한 관심은 부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다양한 생활방식과 여가문화 활동, 노년

<표 6> 생활·복지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n(%)

	생활		복지		
	예술활동	생활방식	복지	정책	다문화
1980년대	0(0.0)	3(75.0)	1(25.0)	0(0.0)	0(0.0)
1990년대	2(12.5)	6(37.5)	7(43.8)	1(6.2)	0(0.0)
2000년대	0(0.0)	12(57.1)	1(4.8)	7(33.3)	1(4.8)
2010년이후	0(0.0)	9(36.0)	6(24.0)	7(28.0)	3(12.0)



<그림 6> 생활·복지 차원의 주거문화 변화 경향

층의 증가에 대응하는 주거 등 복지관련 연구 등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대 이후 주거복지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연구 역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최근에는 다문화와 관련된 연구와 새로운 가구 구성에 따른 라이프스타일 관련 연구들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1980년대에는 생활복지 차원 중에서도 개인과 가족 중심의 생활방식을 다룬 연구들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다음은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심리적 차원의 연구, 이웃관계 등의 사회적 차원을 다룬 연구 등의 순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90년대에도 지속되고 있으나 특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 차원의 연구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개인/가족 중심에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2000년대 이후로 커뮤니티에 대한 관심의 증가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문화와 복지대상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관련 연구, 다양한 가구 및 가족유형에 대응한 생활양식 관련 연구도 점차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1980년대 이후 2012년까지 주거문화에 관한 선행연구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우리 주거문화에 대한 시기별 변화 경향을 파악하는 한편 향후 변화 방향을 예측해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시기적으로 1980년대에는 주거문화와 관련된 연구가 양적으로 많지 않은 탓도 있겠으나 연구주제 면에서 주

로 물리적 차원의 주거계획 및 성능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후 1990년대 역시 주거계획과 디자인에 관련된 주제가 많긴 하였으나 이전에 비해 공유공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개별단위주택보다 이웃간의 관계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과 자연경관 등에 대한 연구주제가 많이 나타남을 볼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995년 이후부터 주거의식 및 주거선호, 주거요구 등에 관한 연구가 양적으로 급증하였으며 특히 2011년 이후부터는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차원의 연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선행연구문헌에 사용된 주제어를 중심으로 주거문화의 시기별 변화경향을 살펴본 결과 주거문화란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 및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 또는 그렇게 변화해가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문화의 특성과 경향을 보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의 요구(needs)와 더불어 인접한 시기의 국내외 정치경제, 사회문화, 과학기술 등 변화하는 사회의 배경적 양상을 면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향후 근미래에 나타날 우리의 주거문화는 물리적 차원에서는 인구 및 가구구성상의 변화 즉 1-2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들의 변화하는 주거요구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주거공간 및 주거유형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주택시장 역시 이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변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변화하는 가족구성 및 소규모화된 가구의 생활방식에 따라 공동체 주거문화와 새로운 이웃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관계를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물리적 공간 및 프로그램, 서비스와 정책의 개발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심리적, 생활복지 차원에서도 이상에서 언급된 변화 경향과 맞물려 기술과 전통, 하이테크놀러지와 전통과 향수를 추구하는 아날로그적 감성이 함께 어우러지는 주거문화의 다양성이 강조될 것으로 예견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선행연구문헌들의 경우 주거문화와 관련된 일부 주제어를 중심으로 도출함에 따라 내용적으로 상관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기별로 누락된 문헌들이 상당수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보완하여 보다 심층적인 문헌분석을 통해 내용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과정 및 방법상의 문제점들을 감안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주거문화의 전반적인 시기별 변화 경향은 향후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주거환경의 계획 및 주거문화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의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강순주·김상희, 현대주거학, 초판, 교문사, 서울, 2006
2. 강인호·한필원, 주거의 문화적 의미, 초판, 세진사, 서울, 2000
3. 유태용, 문화란 무엇인가, 초판, 학연문화사, 서울, 1999
4. 주거학연구회, 넓게보는 주거학, 초판, 교문사, 서울, 2005
5. 강순주·김진영·함선익, 공동주택 커뮤니티 관련 연구들의 시대적 경향분석과 사회적 배경 요인들과의 관계,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23권 4호, 2012.8
6. 강지혜, 서울시 및 수도권 거주자의 주거의식의 유형화와 주거요구에 관한 논문, 연세대 석사논문, 2008
7. 김미희·문화정, 주의식과 주민전용 공동공간에 대한 요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8권 3호, 1997.10
8. 김미희·이유미, 주생활양식 유형과 공동주택내부·외부공간의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9권 2호, 1998.6
9. 김영미·장희순,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0권 1호, 2012.6
10. 김용성·이공희·박수정, 공동주택 건축디자인에 있어 차별화전략 구성요소에 관한 기초적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제2권 2호, 2001.4
11. 김재호·김경숙, 현대 실내디자인 스타일 분석을 통한 트렌드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0권 4호, 2004.12
12. 김정아, 산업화가 전통주거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문화적 매개변인들에 대한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2권 4호, 2001.11
13. 류현주·양세화, 노인주거 연구 경향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1권 5호, 2010.10
14. 류혜지, 길을 뉴타운 주거환경디자인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3권 4호, 2007.12
15. 류혜지, 유비쿼터스 주거환경에서의 부엌가구 디지털 컨버전스화를 위한 소비자 요구 분석,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6권 4호, 2010.12
16. 박선희, 지속 가능한 주거 계획과 문화적 과제,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5권 1호, 2003.5
17. 박영순·신인호·한정원·황유진, 도시 아파트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5권 1호, 1994.6
18. 박지민·윤정숙·박은선, 대학생의 감정과 선호하는 주거 실내공간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6호, 2011.12
19. 배은경, 주거환경 변화에 의한 스마트 홈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제3권 2호, 2008.8
20. 서정렬, 주거수요패턴의 변화에 따른 향후 주택개발의 방향, 주택포럼 제3권 8호, 1997.9
21. 송장복·전경배, 單獨住宅住民의 住居意識 및 行態에 관한 調査研究 -서울경우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권 4호, 1987.8
22. 신장현, 인쇄매체 광고를 통해 본 우리나라 주거문화의 경향에 대한 고찰, 서울대 석사논문, 2003
23. 오찬옥·이연숙, 중년층의 배경변인에 따른 노인주거특성에 대한 선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4권 1호, 1993.6
24. 유수연, 디지털시대의 퓨전문화와 퓨전디자인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5, 2000.12
25. 윤기병, 주거문화와 지역성,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5권 1호, 2003.5
26. 윤복자·이지현,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의식에 내제된 전통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8호, 1994.6
27. 윤준선·이창석, 새주거문화 변천의 이론적 접근과 미래주거의 전망, 부동산학보 제31집, 2007.12
28. 은난순, 1980년대 이후 한국 주거문화에 나타난 근대화의 재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5호, 2004.10
29. 이경희, 주거문화와 여성, 한국여성학, 제12권 2호, 1996
30. 이선미·이연숙, 주부들이 원하는 아파트 실내공간의 평면구성 특성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7호, 1998.12
31. 이성미·이연숙, 주요 신문매체를 통해 본 아파트 주거문화 분석,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6권 3호, 2005.6
32. 이연숙·신화경, 노인동거가족의 공간적 환경 요구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6권 2호, 1995.6
33. 이연숙·이정연, 집합주택의 실내환경속성에 대한 거주자 선호에 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1권 2호, 1990.12
34. 이지연·이연숙·윤혜경, 아파트 커뮤니티 공유공간에 대한 최근 5년간 연구경향분석,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22권 1호, 2010.4
35. 이현수·박소윤, 미래 주거 계획의 방향설정을 위한 마이크로트렌드 분석, 인포디자인이슈 제16호, 2009.3
36. 정은옥·이훈, 노인부부를 위한 住居性能 要求條件에 관하여, 대한건축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계회계) 제7권 1호, 1987.4
37. 천현숙, 아파트 주거문화의 특성, 한국주거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제17권 1호, 2005.5
38. 한문중·남경숙, 도심 금교형 실버타운의 주거공간 내 유비쿼터스 홈 서비스 현황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18권 1호, 2012.1
39. 한지희·윤정숙, 대학생 1인 가구의 생활패턴 및 주거요구에 따른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 평면계획방안,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제22권 4호, 2011.8
40. 장립중, 우리 주변의 거주 문화를 통해 본 수상복합 아파트, 건축(대한건축학회지) 제46권 12호, 2002.12
41. <http://www.asiae.co.kr/news>

[논문접수 : 2013. 06. 20]
 [1차 심사 : 2013. 07. 22]
 [2차 심사 : 2013. 08. 01]
 [게재확정 : 2013. 08. 09]